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환경선교주일 】

인도 : 김재홍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이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경배의 찬송 32. 만유의 주재	다 함께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절을 겪으며 깊게 반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못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조화롭게 살고 있건만 인간은 욕망을 앞세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망가트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인간만을 위한 삶의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생명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의식을 상실한 채 권력을 힘입어 망발을 일삼는 인사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침략자의 폭력 아래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영혼의 아픔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편드는 불의한 자를 벌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안타까운 사고를 반복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많은 이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제발 돈과 속도보다는 사람과 생명을 중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일상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위로의 말씀 시84:5,6a	인도자	
교 독 문	113. 자연과 환경	다 함께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찬 양	478. 참 아름다워라	다 함께
성경봉독	롬 10:9~13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특 송	주님의 숲	환경부
말 씬	주님의 숲이 되어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찬 양	475. 인류는 하나 되게	다 함께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평화의 인사		다 함께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품은 숲처럼 넓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잊지 마십시오. 허물이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많은 이를 받아줌이 마땅한 일입니다. 메마르고 지친 영혼에게 다가가 주님의 숲이 되어 주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믿음과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이를 배제시키고 차별해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품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많은 이의 품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축 복		김기석 목사

다음주	설교	성경봉독	인도
	김기석	인도자	김재홍

-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파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 교회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

